

첫영성체 예식

【미사 전 안내】

▶ **해설** : 오늘 첫 영성체하는 어린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린이들이 미사를 소중히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당】

▶ **해설** : 오늘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굳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미사 중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이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 **해설** :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번입니다.

(사제가 입당할 때 첫 영성체 어린이들은 줄을 서 있다가 바로 출발하여 사제가 제대 앞에 서면 행렬이 당도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설** : (첫 영성체 어린이들은 미리 줄을 서 있다)

첫영성체 어린이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뒤로 돌아 어린이들을 향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느님께서 커다란 사랑의 선물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어린이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영성체 어린이들이 촛불을 켜 채 들고 성전 뒤에서부터 입장하며 사제에게 인사를 하고 촛불을 드리면 사제는 촛불을 받아 복사에게 준다. 복사들은 촛불을 받아 제대 위에 정리한다. 첫 영성체 어린이들은 촛불을 사제에게 드리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 선다. 입장이 모두 끝나고 사제가 제대 앞에 서면)

✠ (노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인사】

【참회】

【자비송】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 멘.

【대영광송】

【본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

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12-16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13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14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15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16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ㄱㄴ(◎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9-11ㄴ.12-13.17-19

9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0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1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12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13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노래】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강론 후 사제가 목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 **해설** : 첫영성체 어린이들은 일어서십시오.

【첫 영성체 약속 봉헌】

▶ **해설** : 지금부터 첫영성체 예식이 시작됩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질의응답)

✦ 오늘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 첫영성체를 원합니다.

✦ 첫영성체란 무엇입니까?

◎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몸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 예, 원합니다.

✦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까?

◎ 예, 저희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친구로 하여 언제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 **해설** : 이것으로 첫영성체 어린이들의 약속봉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어서 보편지향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보편지향기도 - 가족들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낭독해도 좋을 듯】

【성찬의 전례】

※ 예물봉헌 후 사제가 제대로 올라가면

▶ **해설** :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번입니다.

【예물기도】

✦ 주님, 주님의 백성과 첫영성체를 하게 될 당신의 자녀들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

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기도 - 감사송】

<부활 감사송 1 :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성가 - “거룩하시도다”**

【성령청원 : 축성 기원】

【성찬 제정과 축성문】

【신앙의 신비여】

【기념과 봉헌】

【성령 청원 : 일치 기원】

【전구】

【마침 영광송】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

【평화의 예식】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 **해설** : 앉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성체는 먼저 첫 영성체 어린이들의 양형영성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자분들의 순서로 영성체를 하겠습니다.

성체성가 ()번 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번입니다.

【영성체 후 묵상】

▶ **해설** :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의 발 앞에 엎드려 토마스 사도처럼 “저

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영성체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영성체 후 장엄강복】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모인 첫 영성체 어린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하소서.

◎ 아멘.

✝ 현세 생명과 천상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이 어린이들의 부모들에게 강복하시어, 주님께서서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 아멘.

✝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함께 한 신자들에게도 강복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가득히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파견】

▶ **해설** : 파견성가 ()번입니다.

※ 미사와 첫 영성체 예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